

# 전략산업과 SW산업의 융합성장을 모색한다

## - 지경부, 자동차 등 5대 산업분야 산업체 현장방문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진흥과(02-2110-4783)  
수송시스템산업과(02-2110-5634)

- 지식경제부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에 SW적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장감 있는 정책수요 발굴을 위해 자동차, 조선 등 5대산업 분야 현장방문을 추진
  - ※ 현장방문일정 : 의료·건설(4.8), 조선(4.15), 항공(4.16), 자동차(4.21)
- 이는 각 산업의 자체기술 혁신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IT/SW기술을 접목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이나 서비스를 혁신하고 SW산업의 신시장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
- 지식경제부는 금년도 SW관련 R&D로 산업과 SW의 융합을 지원하는 임베디드SW관련 분야에 집중 투자(360억원 규모)할 계획
  
- 이러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설정선 성장동력실장은 SW 및 조선산업 담당과장과 함께, 4월 15일 조선업계 세계1위 업체인 현대중공업(사장 최길선, 울산)을 방문하여,
  - 선박건조와 관련한 IT/SW 관련사업\*의 추진상황 등 양 산업의 접목현장을 직접 살펴보고, IT/SW 적용을 통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함
  - \* IT기반 선박용 토탈솔루션 개발사업('08~'11) : 선박의 철재구조물 등에 RFID와 위치추적 기능을 부착하여 선박건조과정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개발 등
  - \* u-Safety(SW지역특화사업, '06~) :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, 폭발 등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관제시스템 개발
  
- 설 실장은 작년에 국내조선사가 사상최대의 선박수주량을 기록했으나, 중국 등 후발주자를 견제하고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
  - IT 특히, SW적용을 통한 새로운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
  
- 현대중공업 최길선 사장은 지속적으로 조선분야 1위를 고수하면서 고부가가치 첨단 선박건조 분야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,
  -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IT산업분야 기술을 조선분야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간의 기술 융합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고,

◎ 국책연구소의 축적된 IT기술을 조선업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건의

■ 앞으로 지식경제부는 현장방문시 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부가 추진중인 신성장동력사업에 SW분야 과제로 적극 반영할 계획임

## 한국전력거래소 중앙급전시스템의 “후비설비”를 천안으로 이설 “한국전력거래소, 천안지사 준공” 전력계통운영 안정성을 한층 강화

문의 | 지식경제부 총괄정책과(02-2110-5514)

■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한국전력거래소(이사장: 박수훈) 중앙급전소시스템의 “후비설비”를 천안으로 이전함에 따라 천안지사의 준공식을 3월 27(목) 개최,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■ 이날 준공식에는 지식경제부 이재훈 차관을 비롯하여 지역공공기관과 전력유관기관 임직원 등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였으며, 유공자들 12명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표창이 있다. 이재훈 차관은 이날 준공식 치사를 통해 그동안 천안지사 준공을 위해 수고한 건설관계자와 지역주민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감사를 표명하였다.

◎ 아울러 이재훈 차관은 충남지역의 전력소비는 국가전체 소비의 10%수준이지만, 발전설비는 보령·태안·당진 등 3개 지역에 국내 총발전설비의 21%에 해당하는 1천480만kW가 가동 중에 있으며,

- 국가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설비가 천안지역에 설치·운영됨으로써 지역발전과 전력산업 발전간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◎ 또한 전력계통보안관제센터(ISAC), 한국형에너지관리시스템(KEMS), 시장운영시스템(MOS), 급전실 등 주요 안전시설의 현장을 점검하시면서, 안전관리의 만전을 당부하였다.

# 전자정보통신업계, 올해 설비투자 약 22조 5천억원 예상

## 6월말까지 “New IT산업 발전전략(가칭)” 수립·발표키로 ...

문의 | 지식경제부 정보전자산업과(02-2110-5672)

-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4월 10일 서울 상암동 DMC에서 개최된 전자회관 준공식에 참석, 전자정보통신업계 CEO들과 민관합동 정책 토론회를 갖고 전자정보통신업계 당면현안 및 업계의 투자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음
- ◎ 이날 간담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비롯해, 윤종용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회장(삼성전자), LG전자, 대덕전자, 메디슨, 정보통신연구원장 및 전자부품연구원장 등 총 30여명의 업계대표 및 유관기관장이 참석했음(붙임 2 참조)
  
- 이날 토론회는 “New IT산업 발전전략(가칭)” 수립을 위한 「IT 30 릴레이 토론회」행사의 첫 번째 토론회로서,
  - \* 4.10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반도체, 전자의료기기, 디스플레이, 이동통신, LED, RFID/USN 등 분야별 토론회도 릴레이로 개최(붙임3 참조)
- ◎ 舊 산자부의 전자산업과 정통부의 정보통신산업이 지식경제부로 통합된 현 시점에서, 산업간 융합화 등 IT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, 새로운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를 발굴하고자 함임
- ◎ 지식경제부는 금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「IT 30 릴레이 토론회」를 갖고 6월말 “New IT산업 발전 전략(가칭)”을 공식 발표할 예정임
  
- 이날 토론에서 전자정보통신업계는 금년 중 반도체, 정보통신,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0.2% 증가한 22조 5천억원의 설비투자계획을 밝히고 각종 기업규제완화 등 투자여건이 호전될 경우, 추가적인 투자계획도 적극 검토키로 했음
- \* 반도체(118.2천억원('07)→108.9('08)), 디스플레이(26.9('07)→54.1('08)), 정보통신(53.39('07)→55.1('08))
- ◎ 이에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해 전자정보통신업계가 국내 투자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

줄 것을 당부하고,

- ◎ 지식경제부도 업계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서 “기업하기 좋은 환경” 만들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

-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 외에 전자정보통신업계의 당면 현안이 되고 있는 EU 및 중국의 환경규제 대응방안, 한-EU FTA 대응방안 등도 깊이있게 논의되었음

- ◎ EU 및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관련, 업계는 중국의 강제인증제 시행 등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이 힘든 분야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고,

\* EU는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(RoHS)에서 총체적화학물질관리(REACH)로 나아가고 있으며, 중국은 '08.하반기, China RoHS를 강화하여 CCC(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)를 도입할 계획

- ◎ 한-EU FTA와 관련, 이장관과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이 “국내 전자정보통신 산업분야는 한-EU간에 강점과 약점 부분이 뚜렷하므로 한-EU FTA 체결은 상호간에 이익이 된다”는 점에 공감하였음

\* 對 EU 주요 수출품은 휴대폰, 디스플레이, 반도체, 칼라TV 등이며, 주요 수입품은 비메모리반도체, 계측·제어기, 전자의료기기, 통신부품 등

- 다만, 양측간 양허수준 및 원산지 규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

- 이날 업체에서는 R&D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확대, 수도권 내 공장건축물 건폐율 완화, 그린파트너쉽 공동인증 체계구축 지원 등의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,

- ◎ 이에 이 장관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가능한 사항은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함.

- 한편,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업계의 30년 숙원 사업인 전자회관 준공식에 참석해,

\* 한국전자산업진흥회('76년 창립), 전자부품연구원 일부 등이 전자회관에 입주

- ◎ “이번 상암동 전자회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보통신업계가 다시 한번 힘차게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”며 그간 전자회관 건립에 기여한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및 업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음

# 주유소간 휘발유 · 경유 등 거래 자유화

문의 |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(02-2110-5453)

- 지식경제부는 4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을 보고하였음
- ◎ 이번 개선으로 '75년 이후 30여년간 금지되어 온 주유소 간 제품거래가 허용되고, 정유사의 가격공개 주기가 단축되는 등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
  
- 우선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던 일반대리점, 주유소, 일반판매소의 동종 판매업종간 제품거래를 허용함
- \* 제품거래 허용 내용 : 일반대리점 ↔ 일반대리점, 주유소 ↔ 주유소, 일반판매소 ↔ 일반판매소
- ◎ 수평거래 금지 제도는 유통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판매업 대형화를 유도하고 불법·부정제품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,
  - 유통구조가 수직 계열화됨에 따라 석유제품이 정유사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쟁이 최소화되고,
  - 유통흐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업체들의 효율적인 물류정책 추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었음
  
- 또한 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던 석유제품 가격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임
- ◎ 우선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유사 유통시장 공급가격의 공개주기를 현행 월간 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고
- ◎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(4. 15부터)
  
- 그밖에 정유사와 수출입업자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를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축소하고 등록요건도 '60일분 또는 1만kl'에서 '45일분 또는 7,500kl'로 완화
- \* 정유사의 원유도입 후 제품생산기간(약10일) 감안시, 정유사의 실

제 석유제품 비축기간은 30일분에 해당

■ 동시에 규제완화와 유통경로 다변화를 틈타 불법·부정제품을 유통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에 대비,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

◎ 우선 기존 석유제품 시험·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관화하여 품질·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,

- 단순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불법·부정제품 유통에 대한 추적단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예정임

- 또한 주로 통계작성용으로 활용되던 수급상황기록 관리 및 검증을 엄격히 하고 허위보고 등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

\* 수급상황기록 허위보고시 과태료 : 대리점 1천만원, 주유소 200만원, 일반판매소 1백만원

■ 지식경제부는 올해 안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여 상기 개선방안을 시행하되,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주기 단축 등 장시간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상반기 중 시행예정